

##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시록 3:14-22

요절: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이제 계시록 2-3 장에 나타난 일곱 교회 중 마지막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슬프게도 이 교회는 일곱 교회 중 최악의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라고 하는 사데교회조차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타락하여 어느 누구도 칭찬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오직 날카로운 경고와 책망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가장 은혜로운 초청을 한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하더라도, 교회는 복음 진리를 지킴으로써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그 빛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가장 풍성하게 부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어, 다시 한 번 복음 진리를 환하게 비출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가지셨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 그리스도의 진노를 일으켰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그들의 상태를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진리도 없었고, 열의와 열정도 없었고, 스피릿이 미지근하고 더러운 구정물과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는 자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함이 없고 실패치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로 새롭게 되어 어두운 세상에서 다시 한번 환하게 빛을 비추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초청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14-17).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64 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 곳은 리쿠스 강의 계곡에 모여 있는 유명한 세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다른 두 도시는 동쪽으로 약 16 km 떨어진 골로새와, 북쪽으로 약 9.6 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서쪽으로 에베소와 동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사이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곳은 은행업과 의료와 섬유산업으로 유명하였고, 매우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곳에서 당시 가장 좋은 옷감을 생산하였는데, 로마 원로원들이 그 곳에서 쇼핑을 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의 주된 신들은 헬라 신들의 제왕 제우스와, 치유의 신이면서 그 도시의 유명한 의과대학의 수호신인 멘카루였습니다. 그 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히에라폴리스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로에 의해 설립된 것이 분명합니다(골 1:7; 4:12-13).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라오디게아를 다섯 번이나 언급하였습니다(2:1; 4:13,15,16 [2]).

14 절은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리스도는 자신을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렇게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아멘”이라는 칭호로 그리스도께 적용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아멘”은 “진실”, “확언” 또는 “확실함”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를 옮긴 것입니다. “아멘”은 진술한 것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경에서 종종 사용됩니다(시 72:19; 롬 16:27).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은 진리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사 65:16 ESV).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확실히 “아멘”이 되십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0 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모두 성취되고 보증되었습니다. 용서, 긍휼, 자애로우심, 은혜, 희망, 영생과 같은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다.<sup>1</sup>

그리스도는 또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어떤 증인은 진리를 말하지만 충성되지 못합니다. 어떤 증인은 충성되지만 항상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충성되면서 참된 증인이 되십니다. 요즈음 많은 거짓말들과 거짓 증언들이 퍼져있기 때문에 진리를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르십니다.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십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으며, 그의 증언은 항상 믿을만한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헬라어 “아르케(arche)”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제 일 원인”, “기원”,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된 분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요 1:3; 골 1:16). 그리스도는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심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왜 이것이 필요한지 골로새 근처의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은 창조된 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하나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런 이단적 가르침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예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위대한 선생의 말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의 영향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있는 실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태도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과 흡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처나 모하메드, 죠셉 스미스, 헤어 크리쉬나, 닥터 필, 또는 오프라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

<sup>1</sup> MacArthur, John, *New Testament Commentary: Revelation 1-11* (Chicago: Moody Publishers, 1999), p.133.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이시고, 그의 말씀은 유일하고, 확실하며,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15-16).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뜨거운 것은 좋고, 미지근한 것은 중간이며, 찬 것은 나쁘다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미지근한 것보다 찬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당시 도시의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근처에는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 두 이웃 도시가 있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치료 효과가 있는 온천이 있었지만, 골로새는 깨끗하고 마실 수 있으며 생명수 효과를 가진 차가운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는 좋은 물 근원이 없어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수도관으로 연결해야 했습니다. 물이 도착할 즈음에는 미지근해지고 미네랄이 녹아들어 구역질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고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차거나 뜨거운 물이 건강에 좋고, 미지근한 물은 좋지 않다고 믿었습니다.<sup>2</sup>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미지근한 물이 좋다고 하지만, 미지근한 커피나 콜라는 싫다고 할 것입니다. 한번은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차를 어떻게 마시는 것을 좋아 하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나의 종교와 같이 매우 뜨겁게”라고 말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스피릿은 그들을 쓸모없게 했고 악영향까지 끼쳤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구역질이 나서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미지근해졌을까요? 17 절은 미지근한 신앙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미지근해진 것을 암시하는 설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A.D. 60 년에 일어난 큰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된 후, 로마 황제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재력으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들의 부는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였고 또 교만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교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는 부자이니 돈으로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진리에 기초하기보다 물질적인 부에 기초해서 자기를 평가했습니다. 부를 얻는 것은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그럽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면, 부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딤후 6:18-19). 문제는 부가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지하는 수단이 될 때 생기게 됩니다. 이는 교만과 자기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그들은 선을 행하기 위해 부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을 옹호하는 도시의 경제 제도와 타협하였습니다. 그들은 스피릿과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부는 그들의

---

<sup>2</sup> Beale, G.K., *Revelation: A Shorter Commentar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5) p. 91.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요하게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은 좋은 의술로 건강하게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눈먼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최상의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초라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지근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를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몇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1) 시간과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2) 하나님께 대해 목말라 하거나 굶주려 있지 않고, 곤경에 처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성경을 자주 읽지 않고 기도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3) 불신자들에게 신앙을 전파하지 않고, 우리끼리 있는 것을 매우 편안하게 느낍니다. 4)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교회에 오기보다, 사람들과 사귀고자 교회에 출석합니다. 5)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없습니다. 이런 징조들에 기초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로 가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전도자 토드 프리엘(Todd Friel)은 "비참한 라디오(Wretched Radio)"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비참한 죄인이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치료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은혜스러운 초청(18-22).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미지근하고 역겨운 물처럼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뱉어낼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었지만 겸손하게 그들에게 권고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18). 그리스도는 참 구원을 상징하는 세 가지를 그에게서 사도록 그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이 "그에게서 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이 돈의 한계를 깨닫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돈으로 구원과 행복, 의와 사랑과 영생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귀중하여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초청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사 55:1).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하여 그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풍성하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불로 연단한 금인데 이는 순수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금을 갖고 있다면 부자입니다. 순금 10 파운드는 약 25 만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다면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은 선물이지만, 이는 고난의 불 가운데에서 연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말을 들을 때 움찔하면서 "오, 안돼!"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타협의 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질 때, 고난은 우리를 순수하게 하고, 진정한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줍니다. 베드로전서 1:7 절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선물은, 입을 수 있는 흰 옷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운 벌거벗음이 가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고 행한 일로 인해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이 수치는 죄의식과, 소원하게 되는 것과, 슬픔과 비애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 수치와 죄의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의식과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세 번째 선물은, 눈에 바르는 안약입니다. 이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을 말합니다. 눈이 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눈 먼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영적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1:18-19).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제공하신 세 가지, 즉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의 의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참 구원을 주는 복음임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미지근한 교회의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들의 모든 영적 질병을 치료해 줄 만큼 매우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에는 고통스러운 책망의 말씀이 따랐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벌 받는다고 느끼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19). 그리스도의 책망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깨달을 때, 열심을 내고 회개함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롬 12:11). 우리가 영적 열심을 품을 때 회개할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비참한 죄인으로 죽음과 영원한 심판의 운명에 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 예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롬 7:24-25). 회개는 생명으로 인도하며, 영적 질병의 최고의 치료제입니다(행 11:18).

그리스도는 회개하도록 부르신 후 부드럽고 은혜로운 초청을 하셨습니다. 20 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께로 초대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의 문맥을 보면, 이는 영혼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들어오시려고 교회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이 교회에 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도 없었고,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대신에 밖으로 내쫓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떠나 버리심으로 그들을 홀로 남겨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계셨습니다. “서다”, “두드리다”의 동사의 시제는 그리스도께서 현재 계속해서 행동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거기 서 계셔서 라오디아 성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문을 부수고 밀고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시면서 다정한 마음으로 그들이 응답하기를 정중하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이는 그들과 함께 먹으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은 상호 간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의 나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축복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그와 더불어 먹게 하실 것입니다(19:9).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청은 교회의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스도는 그 사람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교회에 불을 붙여 영적 부흥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불꽃입니다. 그리스도는 “불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문 앞에서 서 계셔서 계속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꺼이 문을 열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분명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21). 보좌는 정복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아버지 우편에까지 높이 되셨던 것처럼,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딤후 2:12; 롬 8:17). 이 초청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2 절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과 교회의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